

## 중학생을 위한 통일대비 가정생활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이하나\* · 김유경\* · 송지은\* · 안순희\* · 이연숙\* · 이예영\* · 이윤정\*<sup>1)</sup> · 임정하\* · 정민영\* · 정순화\* · 한영선\*

고려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

##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the Educational Program for South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in Preparation for Reunification on North Korean Family Living Culture

Hana Lee\* · Yookyung Kim\* · Jieun Song\* · Soon-Hee An\* · Yonsuk Lee\* · Yhe-Young Lee\* · Yoon-Jung Lee\*<sup>1)</sup> ·

JungHa Lim\* · Min-Young Jung\* · SoonHwa Chung\* · Youngsun Han\*

*Center for Human Ecology Research, Korea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aimed at developing an educational program for South Korean adolescents on North Korean family living culture so that the students become familiar with the values and everyday lifestyles of North Korea.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culture is considered important as a foundation for social integration in prospect of future reunification. The contents of the program were developed based on the analysis of North Korean defectors' interviews and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media reports on North Korean family culture. The program consists of 12 units of 40-minute sessions with the following topics: economy and consumption, leisure activities, family relationships, dating and spouse choices, fashion changes, clothing acquisition and care, food choices and local diets, dietary problems, housing, and neighborhood. The program was implemented between December 21 and 30, 2015 in a middle school located in Seoul. This program is expected to be useful in preparing the students as future leaders to create harmonious family living culture in the reunified Korea.

**Key words:** 북한(North Korea), 통일대비(Preparation for Reunification), 가정생활교육프로그램(educational program on family living culture), 가정생활문화(family living culture), 남한 청소년(South Korean adolescents)

---

1) 교신저자: Lee, Yoon-Jung, 145 Anam-ro, Seongbuk-ku, Korea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Tel: 02-3290-2326, Fax: 02-927-7934, E-mail: yleehe@korea.ac.kr

2)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A2A03045034)

## I. 서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은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서 다가오는 통일 한국의 주체가 될 것이다. 따라서 남북통일의 가능성과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교육이 과연 청소년들이 통일 한국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내용을 잘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의 성과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으나 그 중요성에 비해 통일교육이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학교 통일교육이 지속적인 확대 추세에 있으나 아직까지 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인프로나 교육자료 등의 부족으로 학생들의 통일 및 북한에 대한 무관심을 초래했다는 의견이 있다(Jeon, 2005; Oh, 2012). 또한, 통일교육은 정권과 정책에 따라 변모되어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왔다(Park, 2017). 이러한 정부 위주의 통일교육은 정권의 교체에 따라 그 방향성과 논지가 달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없어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였다.

우리나라 제7차 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 내용은 초등, 중등, 고등의 학교급에 따라 통일교육의 내용을 심화시키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초등학교 학급에서는 통일문제 관심 갖기, 북한 동포 이해, 통일의지 고취 등을 포함하였고, 중학교 학급은 북한 바로 알기, 안보의식 및 평화의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고등학교 학급은 남북한 통일정책, 통일 한국의 미래상, 민족 동질성 회복 등을 담고 있다. 이러한 통일교육 내용은 도덕, 국어, 사회 등의 교과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학교 현장에서 통일교육이 지속적인 확대 추세에 있으나 현재를 살아가는 남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 영역을 포함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통일교육의 주된 내용이 단순한 지식 전달과 설명 위주의 교육방법을 따른다는 점과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투입되지 않고 있다는 점, 교육과정에서의 통일교육은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Jeon, 2005)과 더불어 학교 통일교육이 정치와 이념적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과 태도를 함양하는 내용이 부족하다는 점 또한 지적되어 왔다(Kwon, 2007). 이에 학생들의 가치관과 관심사를 고려하여 통일교육의 방향을 정립해야 하며(Jeong, 2010), 과거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하여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 방법론적 측면의 변화가 강조되고 있다(Song, 2017).

남한과 북한의 문화적 단절은 가정생활문화의 이질화를 가져왔고, 이러한 환경에서 상이한 사회화 과정을 거친 남북한 청소년들은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활문화 양식을 형성하여 앞으로 미래 사회 통일한국의 주축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된다. 가정생활이 사회생활의 기반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남북한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하여 북한의 가정생활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가정생활문화를 통한 교육은 가정이라는 생활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실천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남북한 주민 간에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사회적 융합을 이루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의식주와 이동·가족관계 전반을 다룸과 동시에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는 가정교과에서는 다른 교과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에 비해 가정생활문화 전반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2016년 통일부 시행 학교통일교육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통일교육을 통해 배우고 싶은 내용은 북한의 생활모습이 41%,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된 국가의 미래가 22.9%, 우리나라의 통일정책 13.8% 순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는 현재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통일교육의 내용 중 북한의 생활모습에 대한 내용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방증한다. 이는 추상적인 차원의 통일의 필요성과 국내의 정세보다는 실제적으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알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의 욕구를 나타낸다(Park, 2010). 이러한 학습자의 요구를 고려할 때 북한의 가족생활에 대한 교육은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효과적인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육기본지침서(Ministry of Unification, 2004)나 학교통일교육실태조사(Ministry of Unification, 2016)에서도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관련지어 접근하는 통일교육 내용이나 통일 대비 교과과정 개발 연구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듯이 남북한 이질성의 해소와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 가정생활문화 분야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교육의 일환으로 남북한 가정생활문화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통일대비 교과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새로운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안정되고 건강한 통일국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

회 참여적 인재 양성의 일환으로 남북한 가정생활문화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는 중등 가정교과의 교육내용 개발이 절실하다 하겠다. 통일세대가 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북한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을 통한 가정생활문화에 대하여 알려주는 교육적 노력은 통일의 기반이 될 것이며, 통일 후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가 될 수 있는 통일 대비 청소년 교육은 필수적이다. 더구나, 학교급에 따라 내용을 심화시키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통일교육에서 중학교 과정은 ‘북한 바로 알기’를 포함하고 있어, 가정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북한 바로 알기는 이후 고등학교에서의 남북한 통일정책이나 통일 한국의 미래상, 민족 동질성 회복 등을 다루기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일대비 가정생활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남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북한 주민들의 가정생활문화에 대하여 알려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어떠한 가치를 향유하고 실제 삶을 어떻게 영위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활동을 바탕으로 교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체계적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남북한의 가정생활 문화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통일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교육의 초석을 제공하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 고찰

### 1. 중등교육에서의 통일교육 실태와 가정생활문화 교육

청소년 통일 의식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통일에 대한 관심은 1997년 71%에서 2010년 57.3%로 감소 추세를 보였고, 통일의 필요성 인식도는 1997년 85%에서 2010년 66.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Oh, 2012).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통일부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에서도 위와 같은 추세는 변

함이 없어 2016년 조사 결과에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학생은 63.4%로 나타났다(Ministry of Unification, 2016). 이를 통하여 2015년 통일부가 추진한 통일교육 시수 확보 및 시도교육청 평가지표 도입 등 제도적인 노력과 통일교육 연구학교 지원, 전국학생 통일탐구 토론회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한 지원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일교육의 효율성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통일교육은 사회·도덕과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북한의 체제, 사회·경제적 측면과 이념, 정치와 안보 등 학생들의 일상과는 동떨어진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Chu, 2003; Oh, 2012; Shin, 2016). 특히 통일과 관련된 공감적, 실천적 교육내용, 교수모형이나 기법 등은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Bae, 2009). Kwon(2007)은 7차 교육과정 도덕·윤리교과의 통일교육을 분석하고 도덕과의 학교 통일교육이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정치와 이념적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일상 속에서 실천과 태도를 함양하는 내용이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Kwon은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주민 생활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기초로 생활중심의 동질성을 추구하는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협력과 평화를 통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실천의지를 갖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2009 개정 도덕 교육과정을 분석한 Kang(2016)의 연구에서도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북한 체제의 특성을 이해하는 내용이 다양한 측면에서 다뤄진 점은 긍정적이거나 대체로 그 과정이 객관적이지 못하며 부정적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전달하여 학습자의 관심을 유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평하였다. 또한 2009년 개정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통일교육 관련 내용을 통일교육지침을 기준으로 분석한 Yun(2016)의 연구에서도 통일 관련 내용의 서술 분량이 매우 적다는 점과, 분단 이미지를 형성하는 내용들이 많았으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서술이 극히 드물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이는 학교 통일교육의 중심이 되는 사회·도덕교과에서조차도 그 내용이 부족하며, 따라서 다른 교과에서의 통일교육의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교육이 가지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며 그 지향점에는 생활문화를 내용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이 있다. 즉, 사회 또는 도덕교과를 중심으로 북한의 체제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에 한정된 통일교육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측면을 다루는 통일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으며, 일상생활을 주제로 다루며 실천적 성격을 지닌 가정교과를 통한 통일교육이 기존의 통일교육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방안임을 알 수 있다. 가정교과를 기반으로 한 가정생활문화 교육을 통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통일에 대한 실천의지를 교육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기존 초·중등학교의 통일교육과정의 현황을 살펴본 Song, Kim, Kim과 Lee(2016)의 연구에 따르면 도덕 교과가 46편(54.8%)으로 가장 많이 연구대상으로 언급되고 있었으며, 사회 교과가 10편(11.9%), 국어 교과 5편(6%)으로 나타났고 가정과 교육에 있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교육에 대한 현상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사회 또는 도덕 교과에서 대부분의 통일교육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중등 통일교육에 대한 시각이 제한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실과 교육과정에서도 통일교육에 대한 선행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Kook(2005)은 초등실과에서 통일교육 방안에 대한 프로그램을 생활 관련 주제로 하여 11개 차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Lee(2005)는 통일교육의 접근 모형을 제시하여 관련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학습자료를 예시로 소개하였다. Chung과 Hwang(2007)과 Chung(2008), Chung과 Kim(2008)의 연구도 의생활, 가족 및 소비생활, 식생활 및 주생활이라는 주제로 각각 통일을 대비한 가정생활 교육방안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이렇게 초등교육의 실과 교육과정에서 통일대비 연구가 진행된 것에 비해 중등 가정교과에서의 통일 연구는 미비하였다. 최근 Y. Lee et al.(2016)의 연구에서 북한이탈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가정생활교육,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가정생활문화교육에 대한 연구(Y. Lee et al., 2017)가 진행되었으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 현장에서의 통일교육이나 이와 관련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가정생활문화 분야는 학생들에게도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 학습동기 부여가 가능하므로 가정교과의 교육과정과 연관되어 개발된 통일대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 유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남북한 가정생활문화화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토대로 다문화 관점에서 남북한 상호 가정생활문화화의 포용과 적응이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 요소를 발견하고 제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 2. 북한의 가정생활문화에 대한 선행연구

남한과 북한의 문화적 단절은 가족생활문화의 이질화를 가져왔고, 이러한 환경에서 상이한 사회화 과정을 거친 남북한 청소년들은 서로 다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 통일 후 남북한이 사회적으로 통합해 가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가치관은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하여 북한의 가족생활문화와 가치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북한의 가정생활문화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주제별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북한의 시장과 소비자를 보면 자연재해 및 경제난으로 촉발된 식량난과 체제붕괴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시기로 ‘고난의 행군시기’라고도 불리는 1990년대 이후 북한에서도 소위 ‘장마당’이라고 불리는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이러한 북한경제 상황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북한의 시장경제 체제 도입 및 법제화 등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Jeong, 2009; Lee et al., 2009; Yang, 2006). 북한에서 주민들에 의해 장마당이 형성되면서 북한 정부 당국에서는 물자교류시장을 설립하는 등의 제도적 변화가 나타났다. 이는 북한체제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과도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Jeong, 2009). Jeong에 의하면 다양한 행위자들이 시장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북한사회의 시장은 끊임없이 다양한 형태로 분화하며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면서 점차 외부세계의 시장과도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확산되고 있다.

시장경제에 참여함에 따라 북한 주민들도 소비자의 5가지 역할인 획득자, 배분자, 구매자, 사용자, 처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C. Lee et al., 2016). 획득자는 소득 등의 자원을 획득하는 자를 말하며, 배분자의 역할은 획득한 자원을 저축과 지출을 구분하여 지출목록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구매자 역할은 배분된 지출목록을 정보를 수집한 후 합리적인 구매를 하는 것이며, 사용자는 구입한 상품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역할, 처리자는 올바르게 처분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에서는 그동안의 북한 경제 체제 특성으로 인해 소비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여 이러한 소비자의 역할이 미흡하게 수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Rhee & Rha, 2007).

북한이탈주민의 소비생활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접하면서 생길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소비생활경험을 통해 소비자문제를 파악하는 연구가 있다(Kim, 2012; Sohn, Jung, Kim & Pak, 2014; Rhee et al., 2000; Rhee & Rha, 2007). Kim(2012)은 1990년대 이후 북한주민의 소비생활에 대해 분석하였고, Sohn et al.(2014)의 연구에서는 여성 북한 이탈주민의 소비생활적응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여성 북한이탈주민은 시장거래에서 자신감이 없고, 남한의 소비문화와 제도에 익숙하지 않아 북한이탈 주민들에게 소비자 역량 강화가 소비생활적응의 핵심 변인임을 밝혔다. Rhee et al.(2000)의 연구에서는 북한에서 주민들의 소비패턴, 소득 획득, 가계재무 관리, 소비자 만족도, 시장 활동, 소비와 저축, 소비자 주권과 소비자 보호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Rhee와 Rha(2007)는 북한주민들은 소비자나 소비자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소비자 권리와 의식이 결여되어 자본주의화 된 시장 환경에서 많은 소비자 문제를 겪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북한의 여가생활과 관련한 연구는 여가 활동별 실태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Kim, Han과 Lee(2006)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 주민들의 관광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북한에서는 단체관광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여행이 제약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한편, 인민가요를 중심으로 한 연구로는 북한가요에 대한 연구(Jang, 2003), 여성을 중심으로 한 북한 생활가요의 특성에 대한 연구(Jeon, 2012), 혁명가요의 특성과 내용에 대한 연구(M. Lee, 2015) 등이 있다. 또한 북한의 TV드라마의 유형과 체계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를 통해 남한과의 차이점을 비교한 연구(Kim, 2013), 북한의 핵심적 미디어인 조선중앙TV의 편성에 대하여 분석한 연구(J. Lee, 2011) 등이 있었다. 이 외에도 북한의 체육활동에 대하여 분석한 연구들(Ahn, 2002; Hyun & Ahn, 2015; Na et al., 2013), 영화에 대하여 분석한 연구들(Ahn & Jin, 2015; Han, 2014; Kim & Lee, 2016; Lee, 2000)이 존재한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북한에서 여가는 체제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는 특징이 있다. 즉, 텔레비전 방송이나 인민가요, 영화 등이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노동과의 연관성을 강조하여 생산성 향상의 수단으로 노동요, 악기연주 등이 이용된다.

가족생활 및 자녀양육과 관련해서는 남북한의 가족을 비교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특히 북한의 여성 잡지인 『조선녀성』

의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는데, 가족관, 결혼관, 자녀관, 부부관 등 북한의 가족가치관의 변화양상을 살펴 그 내용을 남한의 가족관련 법령 및 가치관 자료와 비교하여 고찰한 연구(Chung & Lim, 2014), 북한의 가족과 자녀 교육을 분석한 연구(I. Lee, 2015), 북한의 모성 이데올로기와 자녀 양육에 대해 분석한 연구(Lee, 2004), 자녀양육과 가족관계 관련 용어의 남북한 비교연구(Lim, Chung, & Song, 2016) 등이 있다. Chung과 Lim(2014)에 따르면, 북한의 가족관은 가정의 개념을 사회 전체로 확대하여 북한사회 전체를 하나의 대가정으로 간주하는 “사회주의 대가정”이라는 개념으로 대변된다. 즉,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대가정”이라는 개념 하에 결혼관에서는 영예군인과의 결혼과 검소한 결혼식을 장려하였고, 부부관에서는 혁명적 동지애를 강조하였으며, 자녀관에서 사회주의 혁명 역군인 자녀출산과 양육을 강조하고 가족부양을 강조하는 등, 사회적, 국가적 의무를 수행하는 단위로서의 가족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이성교제와 개인의 선택이 우선시되는 남한에 비하여 북한에서는 이성교제, 배우자 선택기준, 이혼 등이 자유롭지 않으며, 북한에서도 부부관계의 평등성을 전제로 하기는 하나 역할인식 및 수행에서의 불평등 문제가 남한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im과 Chung(2015)은 『조선녀성』 기사와 관련법령의 고찰을 통하여 남북한의 자녀가치관을 비교하였는데, 남북한 모두 자녀출산과 양육을 가치 있는 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북한은 사회적, 국가적 의무와 관련된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여 자녀양육을 혁명 역군 양성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한다고 하였으며, Lim, Chung과 Song(2016)의 연구는 지금까지 가정과 용어비교 연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동·가족분야 남북한 용어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통일 이후 가정생활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또한 Lee(2004)는 『조선녀성』 기사를 분석하여 북한의 가족과 자녀 교육 및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으며, Lee(2004)도 『조선녀성』 기사를 분석하여 북한의 모성이데올로기를 분석하였다. 북한여성들은 북한체제가 원하는 구성원의 양육을 위해 가정과 사회생활을 성공적으로 병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 같이 모성을 여성 본연의 임무로 간주하고 이를 여성에게 강요한 북한의 모성이데올로기는 국가의 필요에 따라 여성 인력 활용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북한의 의생활과 관련해서도 북한의 전통복식과 의생활문화, 시대에 따른 북한의 의생활 변모양상, 의류산업을 주제로 이루어진 연구가 다수 존재하였다. 북한의 패션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를 얻을 수 없는 한계로 인하여 대부분의 연구들이 문헌자료를 이용하거나 남북한 언론의 내용 또는 북한이탈 주민과의 인터뷰를 근거로 작성되었다. 이들 연구(Syn & Geum, 2001; Yoo & Im, 2006; Cho, 2001)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주체복식기인 1950년대에는 남성은 인민복, 여성은 한복과 몸빼를 착용하였으나, 1960년대에 사회주의 생활양식이 정착되고 서구복식이 도입되면서 1970년대에는 양복이 일상화 되고 “우리식 옷입기”로 주체적 미의식이 정립되어 남성은 레닌 모자에 인민복인 모택동복을, 여성은 흰 저고리에 검은 통치마를 주로 입었다. 이후 1980년대는 남성은 양복과 신사복이 정착되고 여성은 한복과 양장을 혼용하게 되면서 패션의 개념이 도입되었고, 1990년대는 개방화와 함께 서구복식의 흐름을 따르게 되었다고 하였다. 김정은 체제에서의 북한 의생활 변화에 대한 연구들(Choi, 2016; Choy, 2016; Kim, 2016)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국경지대의 청진 또는 해남 등의 국경지대의 장마당이 의류제품의 주요 유통경로가 되고 있으며, 중국이나 한국, 일본 등으로부터의 활발한 중고품의류의 유입으로 활발한 패션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의류산업의 발달은 고도화되어 있지는 않아(Lee & Choi, 2012; Park, Kim, & Yun, 2003), 브랜드, 정찰제 가격, 사이즈체계 등은 발달되어 있지 않으며, 봉제가 가능한 개인수공업자들이 가정내 생산을 통해 의복을 맞춤,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16). Lee, Choi, Lee와 Lee(2015)는 남북한의 의생활 관련용어를 비교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도 북한에서는 산업 관련 용어들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전하고 있다.

북한의 의생활과 관련한 연구에는 의생활 정책에 대한 분석(Y. Kim, 2011a; Y. Kim, 2011b), 북한의 의생활 문화에 대한 연구(A. Lee, 2011; Lee, Pei, & Kim, 2013; Choi, Kim, & Kang, 2015),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상태와 의생활양상에 관련한 연구(Hwang & Chang, 2001; Kim & Jeong, 2011; Lee & Nam, 2012)와 의생활 관련용어의 남북한 비교연구(An & Kim, 2017) 등이 있다. 특히 북한의 의생활 정책은 식량증산과 민족음식의 강조라는 두 가지 흐름이 존재한다는 것이 「조선녀성」을 중심으로 고난의 행군 이후 시기의 북한의 의생활 정책을 탐구

한 연구(Y. Kim, 2011b)와 영화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의 의생활 정책의 실태를 분석한 연구(Y. Kim, 2011a)에서 드러났다. 북한의 의생활 문화 연구의 경우는 고난의 행군 이후 배급제 중단으로 인해 다양해진 북한의 길거리 음식을 조사하거나(A. Lee, 2011),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의 전통음식을 조사하거나(Choi, Kim, & Kang, 2015) 또는 남한음식의 선호도(Lee, Pei, & Kim, 2013)를 조사하였다.

북한의 주거생활과 관련한 연구는 북한의 주거실태와 현황에 관련한 연구, 통일 후 발생 가능한 주거문제에 관련한 연구, 북한이탈주민의 주거 선택과 관련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Suh(2000)는 북한의 주택정책을 살펴봄과 동시에 북한의 다양한 주거 실태를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Kim et al.(1999)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면접과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에서의 주택 수요와 공급, 주택유형과 주거규모, 주거생활 수준, 주거욕구와 주거 기대 등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이 연구들에 의하면 북한은 한국전쟁 후 국가건설위원회를 조직하였으나 공공적 성격의 건물들의 건설과 복원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었고, 제1차 5개년 계획이 실시된 1950년대 후반부터 대대적인 주택 건설을 통해 표준화와 규격화를 통하여 살림집을 건설하기 시작하였다(Hong, 2004. 8). 1960년대 초기 농촌주택은 ‘문화주택’이라는 이름으로 표준화되어 건설되어 보급되었으며, 1960년대와 1970년대 대도시에는 조립식공법으로 고층 아파트가 건설되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와 90년대에 들어서며 2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도 건설되었다. 그러나 Choi(2017)는 UN 자료에서는 북한의 주택보급율이 99.8%라고 보고하였지만,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로 주택건설이 원만하지 않았음을 고려해 볼 때 실제 보급률은 이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추측하였다. 또한, 주택배정은 당원이나 성분(sic), 지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택의 부족으로 배정된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주택입주를 놓고 많은 불법과 비리가 행해지는 실태임을 보여주고 있다(Kim et al., 1999; Kwon, 2014). 또한 2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도 주거설비나 에너지수급 면에서도 부실한 점이 많아 전기나 난방, 온수공급이 되지 않는 등 생활에 불편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Hong, 2004). 이에 Kim(2014)은 통일 이후 북한주택의 사유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고찰하였고, Han(2017)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 배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거문화를 개선하는 연구를 진

행하였다.

이처럼 가정생활문화의 세부 분야에서 선행된 연구들은 북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가정생활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이에 대한 이해를 도왔으나 학교 현장에서 통일 교육을 목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의 확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통일한국의 주축이 될 청소년에게 있어 통일대비 가정생활문화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바,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청소년들의 수준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프로그램은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한 중학교에서 2015년 12월 21일부터 30일까지 ‘통일대비 가정생활문화교육 프로그램’이라는 명칭의 특강으로 실시되었다. 특강은 가정시간을 대체하여 실시되었으며 중학교 1학년에 소속된 2개 반, 총 62명의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12차시의 수업에 모두 참석한 학생은 53명이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 중 32명(60.4%)은 남학생이었으며 21명은 여학생(39.6%)이었고, 이들 중 탈북 또는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2. 연구절차

프로그램의 개발은 준비-개발-실행-평가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다. 각 단계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준비 단계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교수 학습방법을 고찰하였으며, 교수 학습과정안을 작성하였다.

##### 2) 개발 단계

교수 학습과정안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수업목표를 설정하였다. 가정생활의 각 영역별로 개발된 프로그램은 2015년 10월부터 8회에 걸쳐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한 소비생활, 의생활, 식생활, 가족생활을 전공하는 각 영역별 공동 연구자 회의를 통하여 내용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였으며, 11월에는 현지 중학교 가정과 교사와의 회의를 통하여 실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내용으로서의 적절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받아 교육내용을 최종적으로 수정·보완하였다.

##### 3) 실행 단계

개발된 프로그램은 2015년 12월 21일부터 30일 사이에 서울에 위치한 남녀공학 중학교 1학년 2개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프로그램은 40분짜리 12차시 수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수업은 개발된 교수 학습과정안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가 강의, 모둠활동, 발표, 토의 등의 다양한 교수 학습 활동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 4) 평가 단계

실시한 프로그램의 효과는 사전-사후 검사와 전문가 감수를 통해 평가하였다. 사전-사후 검사는 자기응답식으로 구성되었으며 질문의 내용은 교육 목표를 반영하였다. 문항은 주로 ‘나는 북한 주민이 어떻게 소득을 획득하고 관리하는지 알고 있다’, ‘나는 북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내용이 남한과 어떻게 다른지 알고 있다’, ‘나는 북한주민이 집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고 있다’ 등의 지식측정 문항, ‘나는 북한음식과 남한음식을 함께 활용한 식단을 작성할 수 있다’, ‘나는 소비자 피해를 겪은 북한이탈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줄 수 있다’ 등의 기능측정 문항, ‘나는 북한의 가정생활 문화에 대해 관심이 있다’, ‘나는 북한 음식에 관심이 있다’, ‘나는 북한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 등의 태도측정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영역별로는 통일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4문항, 북한 주민에 대한 태도 4문항, 북한의 소비생활 5문항, 여가생활 4문항, 가족생활 4문항, 의생활 4문항, 식생활 5문항, 주생활 4문항의 총 3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 태도, 기능정도가 높은 것으로 구성하였다. 그 외에 사전검사에서 인구통계적 특성을 측정하는 3개 문항을 포함하였고 사후검사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에 대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의 개방식 문항을 추가하여 본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다채로운 의견을 수렴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사전-사후 검사 평균점수 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고, 실질적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Cohen의 *d*값을 산출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시행 후 교육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하여 교수 학습과정안 및 수업자료에 대하여 북한의 가정생활문화에 대한 생활과학 분야 전문가 1인의 감수를 받았다. 전문가의 감수는 프로그램 구성의 관점, 차시별 구성의 타당성, 구성 원고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내용으로 하였다.

#### IV. 연구결과: 청소년을 위한 통일대비 가정생활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 1. 청소년을 위한 가정생활교육프로그램의 개발

###### 1) 프로그램 개발 목적

본 프로그램은 남한 청소년들에게 북한 사회를 구성하는 일반적인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소개하여 북한의 가정생활문화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남북한 가정생활문화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 북한 주민들이 삶을 통해 경험하는 가정, 사회, 문화가 자신과 다를 수 있다는 개방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뿐만 아니라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될 청소년들이 타 문화와 한국 문화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객관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나아가 통일 이후 북한사람들과의 조화로운 삶을 위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보도록 하여 스스로 노력해야 할 부분을 발견하게 함으로써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지도 시 유의 사항

통일이나 북한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통일을 자신과 무관한 일로 생각하는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지식전달 방식을 지양하고 쌍방향 참여와 다양한 매체, 교수학습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기존에 여러 경로를 통해 남북한 사회의 공통점보다는 이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접했을 수도 있으므로 공통점도 함께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남북한의 가족생활 가치관이 판이하여 차이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고정관념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북한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 통일을 이루었을 때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하여 미래의 통일을 대비하는 바람직한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였다.

##### 2. 프로그램 내용

본 프로그램은 남한 청소년들이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 사회와 북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도움으로써 통일 세대를 대비하고 통일 후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태도를 습득하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자들은 선행연구 고찰과 탈북 청소년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가정생활의 다양한 측면, 즉,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가족/인간관계, 소비생활, 여가생활 등에 대하여 남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기능 또는 지식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업 자료를 작성하였다.

각 분야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에 따라 분야당 1~2차시가 배정되었다. 소비생활, 의생활, 식생활, 가족/인간관계에 대해서는 2차시씩, 주생활과 여가생활에 대해서는 1차시씩 배정되었다.



Table 1. Learning Contents and Objectives of Each Unit

Unit	Learning Objectives	Learning Contents
Unit 1. Introdu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in unification</li> <li>- To understand the benefits and costs of unification</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mportance of unification</li> <li>- Video “Unification education: Is unification necessary?” by the Ministry of Unification</li> <li>- Costs and benefits of unification</li> <li>- Occurrence likelihood of unification and importance of understanding family life culture</li> </ul>
Unit 2. History of North Korean mark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o understand market history and system of North Korea</li> <li>- To learn the actual state of marke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istory of markets in North Korea</li> <li>- “Arduous March” and monetary reform</li> <li>- Development of <i>Jang-ma-dang</i> (video)</li> <li>⊙ Conditions of North Korean market by type</li> <li>- Service market in North Korea</li> <li>- Labor market in North Korea</li> <li>- Finance market in North Korea</li> <li>- Real estate market in North Korea</li> </ul>
Unit 3. North Korean consumer behavi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o explore North Korean consumer behavior</li> <li>- To understand consumer behavior of North Korea defector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orth Korean defectors’ consumer behavior</li> <li>- Difficulties experienced in South Korea (due to language problems, discriminations, economic difficulties, etc.)</li> <li>- Settlement funds and government supports</li> <li>- Roles of North Korea defectors as consumers: as acquirer, distributor, buyer, user, and processor</li> <li>- Consumer damage experiences</li> </ul>
Unit 4. Leisure culture in North Kor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o understand similarities and difference in leisure life of South and North</li> <li>- To explore current status of North Korean’s leisure lif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ifferences in the concepts of leisure in socialist system and capitalist system</li> <li>- Culture and art activities in North Korea as a means of propaganda: TV broadcasting, songs and music performance</li> <li>- Photo-taking, tourism, and smart-phone use in North Korea</li> <li>- Sports and physical activities in North Korea</li> <li>- Comparisons of the purpose and types of leisure activities in South Korea and North Korea</li> </ul>
Unit 5. Parenting and family life in North Kor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o understand the differences in childbirth and parenting</li> <li>- To compare the values of family life</li> <li>- To live in good relationships with North Korean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amily life and parenting in South Korea and North Korea</li> <li>- Terms used in family life description</li> <li>- Culture related to child birth and child rearing in North Korea</li> <li>- The concept of big socialism family (<i>Sahoejueui-daegajeong</i>, 사회주의 대가정)</li> <li>⊙ Differences in values of family life</li> <li>- Goals of raising children in South Korea and North Korea</li> <li>-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South Korea and North Korea</li> </ul>
Unit 6. Marriage and family relations in North Kor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o understand dating and marriage customs of North Korea</li> <li>- To solve the problems arising from cultural difference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mparison of dating and marriage customs</li> <li>- Dating in North Korea</li> <li>- Choice of spouses in North Korea</li> <li>- Marriage customs in North Korea</li> <li>⊙ Student activities</li> <li>- Discussion on potential problems and solutions for North-South couples</li> </ul>
Unit 7. Development of North Korean fashion and related polic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o compare clothing-related terminologies between South and North</li> <li>- To learn how the North Korean fashion within the socialism changed</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ocio-cultural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s of fashion of North and South Korea</li> <li>- 1950s: Korean War, etc. and fashion</li> <li>- 1960s &amp; 70s: <i>Cholima</i> movement and fashion</li> <li>- 1980s: Diversification and deregulation due to World Youth Festival</li> <li>- 1990s: North Korean definition of ‘our style’</li> <li>⊙ Contemporary fashion trends in North Korea</li> <li>- Influences of Korean Wave and Lee Sul-Joo</li> <li>- News videos on North Korean fashion</li> <li>-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South Korean and North Korean contemporary fashion</li> </ul>

Table 1.(Continued)

Unit	Learning Objectives	Learning Contents
Unit 8. North Korean fashion life	- To understand North Korean fashion life through press and interviews with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lothing-related terms of North Korea</li> <li>- Videos on seriousness of language differences between South and North</li> <li>- Student activity: Terminology quiz</li> <li>⊙ Clothing acquisition in North Korea</li> <li>- Suspension of apparel rationing due to the economic difficulties since 'Arduous March' and Clothing trade in <i>Jangmadang</i></li> <li>⊙ Clothing care in North Korea</li> <li>- Absence of home economics education and clothing care failure due to lack of knowledge</li> </ul>
Unit 9. Food & dietary lif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o understand features of North Korean foods</li> <li>- To learn about North Korean foods according to region and season</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ntroduction to the natural and traditional features of North Korean foods</li> <li>- North Korean food culture influenced by the natural geographical environment</li> <li>- North Korean foods' properties of natural flavor and preservation of tradition</li> <li>⊙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North Korean foods</li> <li>- Characteristics of representative regional foods of North Korea</li> <li>- Comparison of North Korean regional foods</li> <li>- Student activity: development of "Healthy unified food recipes"</li> </ul>
Unit 10. Problems and policies of food & dietary lif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o learn dietary problems and policies of North Korea</li> <li>- To understand nutrition problems through the life cycl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ntroduction of North Korean food procurement methods</li> <li>- Introduction of food procurement methods based on political ideology and economic situation of North Korea</li> <li>⊙ Introduction to North Korea's food issue</li> <li>- North Korea'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food problems</li> <li>- Seriousness of food supply issues of North Korea due to poverty</li> <li>⊙ Introduction of nutrition problems in North Korea by life cycle</li> <li>- Nutrition problems in North Korea by life cycle</li> </ul>
Unit 11. Housing and Neighborhoo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o understand features of housing life and housing problems of South and North Korea</li> <li>- To participate in harmonious communality activities with North Korean neighbor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roblems of housing money management and housing choice of South and North Korea</li> <li>- The housing cost burden of South Korea</li> <li>- Housing supply in North Korea and types of housing</li> <li>⊙ Environmental and energy issues</li> <li>- Energy deficiency issues and consumption in North Korea</li> <li>⊙ Local community participation and neighborhood activities in South and North</li> <li>- North Korean community consciousness</li> <li>- Comparison between South and North in community activity participation</li> </ul>
Unit 12. Closing and Follow-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ummary and wrap up of the program</li> <li>- Post-program test of knowledge and attitude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ummary and wrap up of the program</li> <li>⊙ Feedback related to the program</li> <li>⊙ Discussion and quizzes to review the issues</li> </ul>

시장과 소비생활에 대한 내용이 북한의 변화하는 경제체제를 전반적으로 보여준다고 판단하여 프로그램의 앞부분에 배정하였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 연구자들은 기존의 통일교육이 지닌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고자 학생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을 선정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 유발은 물론이거니와 실제적인 경험을 유도하는 데 주력하였다.

1) 1차시: 프로그램 소개 및 인사

1차시는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및 사전검사를 목적으로 하였

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학생들이 통일 후 북한 주민들과의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의 전달과 태도의 함양이라는 점을 알려주고 통일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 학생들에게 사전검사 설문지를 작성하게 한 후, 유대감 형성을 위하여 수업을 진행할 교수자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통일부에서 제작한 영상, “통일교육: 통일, 꼭 해야 되나요(중학교용)”(Ministry of Unification, 2014)을 시청하게 하였다. 이 영상에서는 통일의 가능성과 통일 비용, 통일의 필요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영상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학생들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또한 학생들이 통일과

북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하도록 돕고 앞으로 수업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응답을 하였다. 1차시의 수업내용과 동영상은 다음과 같은 학습목표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 (1) 통일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2) 통일의 비용과 이점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2차시: 북한 시장의 역사

2차시는 북한의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여 현재 모습은 어떠한지 알아보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북한 시장의 역사를 살펴 보았다.

- (1) 북한 시장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다.
- (2) 북한의 분야별 시장 실태를 통해 오늘날 북한 시장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북한은 해방이후부터 현재까지 경제상황의 변화로 인해 시장의 형태와 구조가 많이 변화하고 있으며 계획경제체제로서 국가에 의한 분배 위주에서 북한의 경제 상황이 힘들어짐에 따라 시장경제체제에 가까운 형태의 시장상황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시장거래가 외환으로 이루어지며, 암시장과 국영시장의 이중적으로 발달되어 왔으므로 환율도 두 가지로 형성되어있는 등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점을 주지시켰으며 남한 중학생들이 기존에 생각했던 북한의 모습과는 다른 북한의 모습이 많아 북한에 대하여 모르는 정보가 많으므로 첫 수업에는 북한의 현 상황에 관하여 기반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수업으로 구성하였다.

북한의 소비생활이 주로 ‘장마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전달하고 2014년 말에 국민통일 방송에서 제작된 “북한 변화의 중심: 시장”(Unification Media Group, 2015)이라는 장마당에 관한 동영상을 시청하며 달라진 북한의 시장상황에 대하여 알게 하였다. 실제로 거래를 외환으로 하며 한국의 시장과 비슷한 형태라는 점을 설명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 소비자, 서비스, 노동시장, 금융·외환, 부동산의 현황이 어떠한지에 대해 영상을 통해 확인하였다.

3) 3차시: 북한 주민의 소비행동

3차시는 북한 주민의 소비생활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에서의 소비생활에 대하여 다루었다.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북한 주민의 소비생활을 설명할 수 있다.
- (2)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겪는 소비자문제에 대해 분석할 수 있다.

소비자의 역할은 획득자, 배분자, 구매자, 사용자, 처리자 5가지가 있다는 가정교과와 기본 내용(C. Lee et al., 2016)을 설명하고 이 수업에서는 북한주민과 북한주민이 남한으로 이탈하여 온 북한 이탈주민 두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이 어떻게 소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소비자 역할에 대한 어려움을 비단 북한주민들 혹은 북한 이탈주민들만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같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고 공감을 이끌어 내어 이러한 점에서의 공통점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영상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아보고 학생들은 역할극을 통하여 바람직한 소비자 행동을 위한 해결책을 필요로 하는 실천적 문제에 대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지도하였다.

4) 4차시: 북한의 여가

4차시는 북한주민들의 여가활동이 어떠한지 알아보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북한과 남한에서의 여가개념의 차이에 대하여 비교할 수 있다.
- (2) 북한 주민들의 다양한 여가활동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북한과 남한에서의 여가는 개념에서 부터 차이가 나는데 북한주민들은 여가향유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 북한주민들에게 법률상 명시해 놓은 규정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직장 내 정치조직이 생산량 초과달성 등의 목표를 정하고, 선전선동 활동을 벌이면 근로자들이 휴가를 자진하여 반납하는 경우도 많아 남한과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북한 체제를 선전하거나 찬양하는 성격을 지닌 북한 텔레비전 방송, 인민가요, 영화, 체육활동 등을 소개하고, 북한주민의 관광

활동, 종교활동 등을 사진 및 영상자료를 통해 설명하였다. 북한주민의 주요 문화예술으로 북한 인민가요 및 악기활동, 노래 부르기와 최근 북한주민들에게 인기 있는 여가활동인 사진찍기, 스마트폰 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북한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다가 문화예술 분야의 활동으로서 현재 어떠한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수업내용을 구성하여 남한 중학생들이 북한주민들의 여가활동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5) 5차시: 북한의 양육: 북한 친구의 성장과정, 그것이 알고 싶다!

‘북한 친구의 성장과정,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5차시 강의의 수업 세부 주제는 북한의 가족생활이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북한 사람이 우리와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성장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2) 남북한 가족생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 수 있다.
- (3) 북한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낼 수 있다.

이상의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먼저 북한의 가족생활유형을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북한의 출산문화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사회주의 대가정’의 개념을 알아봄에 부모자녀 관계에 대해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때 동영상과 『조선 여성』 기사들을 활용하여 북한 부모의 자녀양육 목표와 양육방식을 소개하였다. 수업을 하면서 가족과 사회 내에서 남북한의 청소년들이 어떠한 성장과정을 경험하는지 비교하며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새터민들이 남한에 와서 다른 가족생활 문화를 접한다면 어떠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았다.

- 6) 6차시: 북한의 결혼과 이성교제: 평양에서 온 남자, 서울에서 온 여자

‘평양에서 온 남자, 서울에서 온 여자’라는 주제로 진행된 6차시 강의의 수업 세부 주제는 북한의 이성교제와 배우자선택, 그리고 북한의 결혼풍속이다. 6차시의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남북한 이성교제 및 결혼풍속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 (2) 남북한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상의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 북한의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 이성교제 장소, 학생의 이성교제, 최근의 변화양상에 대해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남북한의 이상적인 배우자상과 결혼풍속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5, 6차시에 다른 주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남북한의 가치관을 융합하여 해결책을 마련해보는 모둠활동 및 발표 시간을 가졌다.

- 7) 7차시: 북한의 의생활 변천

7차시 강의의 수업 세부 주제는 북한의 의생활에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그 변화의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다. 구체적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남북한의 시대별 사회문화적 배경과 패션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다.
- (2) 오늘날 북한의 최신 유행 패션을 알 수 있다.

수업 도입부에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생각하는 현대 북한의 패션을 그림으로 그리게 하여 학생들이 북한에 대해 가지는 이미지에 대해 확인하도록 하였다.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분단 이후부터 2000년대 이전까지의 시기를 크게 4개의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각각의 시기에 있었던 주요한 사회적 사건 및 정치지도자의 발언 등 각 시대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함께 그에 따른 의생활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북한의 2000년대 이후의 현대 패션에 대해 알아보았다. 최근 한류가 북한 내 주요한 문화로 자리잡은 내용, 리설주 등 패션 아이콘이 북한 내 등장한 내용 등 북한에서도 유행패션이 존재하며 다양한 패션이 존재함을 설명하고 북한 이탈주민이 북에서 입었던 의복을 소개하는 동영상상을 통해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북한의 현대패션에 대한 수업목표를 마친 후 학생들에게 북한의 현대 패션에 대한 그림을 다시 그려보도록 지시하여 수업 도입부에서 그렸던 그림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자신이 북한 패션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생각 혹은 편견에 대해 발표하여 다양성을 존중하는 의생활을 영위해야 함

을 숙지하도록 지도하였다.

8) 8차시: 북한의 의생활 용어, 북한의 의생활 실태

8차시 강의는 남북한 의생활 용어의 괴리를 극복하고 실태를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8차시의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북한의 의생활 용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 (2) 북한의 의복 생활과 관련된 실태를 설명할 수 있다.

이상의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 북한의 의생활 용어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북한의 언어 이질화는 표준어와 문화어라는 언어의 기본 규칙에 의해 점점 그 차이가 심해짐을 설명하고 관련 동영상을 통해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용어 퀴즈를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높였으며 북한 의생활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였다. 또한 북한의 의복구매 행동 및 의복 관리 행동과 관련하여 배급제도, 장마당, 5장 6기, 의생활 교육과정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이 북한의 의생활을 한층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9) 9차시: 북한의 식생활

9차시 강의는 북한의 자연적, 전통적 특징과 그에 따른 식생활문화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9차시의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북한음식의 자연적 특징과 전통적 특징을 말할 수 있다.
- (2) 북한음식의 지역별 특징과 종류를 알 수 있다.
- (3) 남북한 음식을 융합하여 ‘통일밥상식단’을 작성할 수 있다.

북한음식의 자연적 특징과 전통적 특징을 소개하여 북한 식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특히 전통적 식문화 고수 측면에서 정치체제로 인한 이질성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배워야 할 점인 것을 설명하여 학생들이 조화점을 찾아 스스로 인식하도록 지도하였다. 또한 북한음식의 지역별 특징과 대표음식을 소개하여 북한의 지역별 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왔으며, 나아가 학생들에게 남한과 북한의 음식을 활용한 식단을 작성함으로써 남북한의 조화로운 식문화 융합 의의를 생각해보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정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영양소의 개념을 활용하여 교과과정도 설명하며 학생들이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 음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균형 있는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10) 10차시: 북한의 영양문제

10차시는 북한의 식량조달 및 주민들의 영양문제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학습목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 (1) 북한의 식량조달방법을 알 수 있다.
- (2) 북한의 식량문제를 이해 할 수 있다.
- (3) 북한의 생애주기별 영양문제에 대해 인식할 수 있다.

북한의 정치적인 이념과 경제적 상황에 따른 식량조달방법을 소개하고, 북한의 식량문제를 양과 질적인 문제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북한 아동들의 영양결핍상태를 파악하게 하는 관련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북한의 식량문제로 인한 영양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조명하였다. 특히 북한의 식량문제에 따른 북한사람들의 생애주기별 영양문제를 연결하여 북한주민들이 겪고 있는 영양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11) 11차시: 남한과 북한이 이웃사이가 된다면?

11차시는 남북한의 주생활 문제와 공동체 문화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11차시의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남북한의 주생활 특징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
- (2) 북한(이탈주민) 이웃들과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다.

남북한의 주생활 특징을 비교하기 위하여 세 가지 특징을 제시하였다. 우선, 주택자금과 주거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남북한의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사유재산의 개념이 없는 북한 사회의 주거개념에 대하여 설명하고 두 번째 특징으로 환경과 에너지의 관점에서 주생활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실제로 전기에너지의 사용이 거주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북한 사회의 에너지 부족과 남한 사회의 에너지 낭비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 보았다. 마지막 특징은 지역사회 공동체 참여문제와 이웃 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고 북한에서는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문화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처럼 남북한의 차이를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통일 후 이웃사촌으로 함께 살아갈 북한 사람들에 대한 공

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12) 12차시: 마무리

마무리 시간에는 수료증 수여식과 설문지를 이용한 사후검사가 이루어졌다. 이후 교수자들과 학생들이 함께 간식을 나누며 학생들이 자유롭게 수업의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였다. 특히 수업을 통하여 배운 내용 중에서 특히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점, 더 알고 싶은 내용 등에 대하여 질문함으로써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다.

3. 프로그램 평가(효과분석)

1) 사전-사후 평가

프로그램의 평가를 위하여 가정생활문화에 대한 청소년들의 지식, 기능, 태도 등을 평가하는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대응표본 *t*-검증을 통하여 사전-사후 검사를 수행한 결과 청소년들의 지식, 기능, 태도 면에서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평균은 2.78에서 3.83( $t=7.77, p<.001$ )으로 상승하였으며, 특히 모든 가정생활문화 세부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일반적 태도나 북한주민에 대한 일반적

태도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지식이나 기능에 비하여 태도는 변화가 어려운 측면을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본 연구의 대상자인 남한 중학생들은 통일교육 시행 전 북한주민에 대한 일반적 태도점수가 세부항목 중 4.05로 가장 높았고, 통일에 대한 일반적 태도 역시 3.39로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보여 중학생들이 가정생활문화 프로그램 시행 전 이미 긍정적 태도를 갖추고 통일교육에 임하였기 때문에 프로그램 시행 전후의 변화가 크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 개방형 피드백 및 전문가 감수

사후조사 설문지에 포함되었던 개방형 평가내용과 더불어 12차시 수업에서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받았던 구술 피드백의 내용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북한의 군사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는데 우리와 같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이 많아 유익했다는 점과 시장경제가 발달하여 돈을 이용해 물건을 구입한다는 점과 유행패션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여가 생활을 즐기는 삶의 모습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통일 이후에 북한 친구를 만나게 될 것이 기대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북한의 가정생활문화에 대한 연구경험이 있는 생활과학 분야 전문가 1인으로

Table 2. Pre-Post test Comparison Results(N=53)

Topic Areas	Pre-test		Post-test		Paired <i>t</i> -test	Cohen's <i>d</i>
	M	SD	M	SD		
General	2.78	0.85	3.83	0.89	7.77***	1.202
Attitude toward Reunification	3.39	1.03	3.59	1.05	1.37	0.184
Attitude toward North People	4.05	0.83	4.00	1.00	0.38	0.048
Consumption	2.87	1.14	3.79	0.93	5.17***	0.878
Leisure	2.70	1.08	3.83	1.02	6.47***	1.069
Family	2.17	1.21	3.91	0.98	8.36***	1.566
Clothing	2.17	1.04	3.89	0.93	9.72***	1.737
Food	2.63	1.06	3.72	0.94	6.91***	1.086
Housing	2.23	1.19	3.88	0.99	8.46***	1.497

\*\*\*  $p<.001$

부터 수업에 사용된 슬라이드와 교수자료의 감수를 받았다. 그 결과, 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구성과 적용 과정에 일관성이 부족하여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나, 전반적으로 학생들에게 남북한의 가정생활문화와 관련하여 통일 후 사회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식을 전달한다는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평가되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남한 청소년들에게 통일 이후의 삶을 대비할 수 있도록 소비, 여가, 가족, 의, 식, 주의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가정생활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남북한의 가정생활문화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전달함으로써 북한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함께 북한 주민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지녀 통일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자세를 갖도록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교육프로그램은 서울에 위치한 중학교 1학년 2개 학급에서 총 5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평가를 위해 통일과 북한 주민에 대한 태도, 가정생활문화에 대한 청소년들의 지식, 기능, 태도를 평가하는 사전-사후 검사와 개방형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가정생활문화 교육프로그램의 모든 세부 영역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그 동안 북한에 대해 알지 못하던 새로운 내용을 많이 접하게 되어 유익하다고 하였으며 통일 후 북한 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학생들은 북한 주민의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본 프로그램이 정규수업이 아니고 전환기 수업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겨울방학을 앞두고 있어 학생들의 집중도가 낮았던 만큼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주의집중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였다. 특히 본 프로그램은 중학생 1학년의 수준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경제적, 정치적 체제에 관련된 개념을 받아들이기 쉽도록 동영상과 질문을 많이 활용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구성하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집중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북한의 시장’ 등의 수업은 북한의 변화하

는 경제에 대한 전반적 지식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였기 때문에 활동 보다는 지식위주로 구성되었으나,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문답식 수업으로 구성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북한에 대한 학생들의 편견을 깨는데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기존에 생각했던 북한의 모습과 수업에서 배운 내용의 차이를 비교하게 하고, 혹은 북한에 대하여 새로이 알게 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등 의견을 교환하게 함으로써 흥미를 이끌어 내고 편견을 교정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하였다. 또한 다양한 개인 활동과 모둠활동을 시행하였으며, 북한주민들과의 공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학생들 자신의 경험을 연관시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발표를 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남한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 다소는 생소한 북한 가정생활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중학교 통일교육의 내용인 ‘북한 바로 알기’, 특히 가족생활 전반을 망라하는 심층적인 학습이 가능하였다. 이는 이후 고등학교에서의 남북한 통일 정책이나 통일 한국의 미래상, 민족 동질성 회복 등을 다루기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 바로 알기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생활에 대한 내용을 통해 학생들은 기존에 자신들이 생각했던 북한의 모습과는 다른 점이 많음을 깨닫고 북한시장이나 경제, 소비생활 등 전반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수업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여가활동 실태 전반에 대하여 관심을 보였고, 북한주민들이 여가를 즐길만한 시간, 장소, 경제적 자원 등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안타까워했다.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남한의 대중문화에 대하여 알려주고 싶다 등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북한 주민들에 대하여 이해하고, 통일 후 북한 주민들과 여가를 통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실천적 전략을 짜는 모습을 보였다.

가족생활분야에서는 ‘북한친구의 성장과정, 그것이 알고 싶다’, ‘평양에서 온 남자, 서울에서 온 여자’라는 제목으로 북한의 양육문화와 이성교제 및 결혼문화에 대해 소개하였다. 교육 내용을 통해 학생들은 자녀에게 희망하는 직업이나 양육방식에서의 남북한 차이, 토대를 중시하는 배우자 선택방식이나 제약이 많은 이성교제 문화, 혼수품으로 오장칠기를 마련하는 혼례 문화 등 남한과는 상당히 이질적인 가족생활문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의생활의 경우, 수업 시작시점에 학생들에게 북한 사람들이 입고 있을 것 같은 옷차림을 그려보라고 했을 때에는 인민복이나 한복 차림을 그리는 등의 편견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통하여 북한에서의 의생활의 변화에 대하여 배우면서 현대의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유사한 옷차림을 하고 시장을 통하여 의복을 구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동질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였다. 학생들은 남북한 주민이 함께 입을 수 있는 의상을 디자인하는 활동을 통하여 통일과 하나됨을 표현하고자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식생활 영역에 대해서는 북한의 지리적 특성에 따른 남한과의 식생활 차이를 학습하였으며, 학생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배급의 중단으로 인해 영양실조에 걸리는 등 많은 영양문제를 경험하고 있음을 제시하자 북한 주민들에 대한 연민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학생들은 이러한 영양문제를 고려하면서 남북한의 식생활 문화를 반영하는 식단을 짜 보는 활동을 통하여 영양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북한 친구와 함께 하는 경험을 상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주생활 영역에서는 북한에서의 주거형태와 주거에 관련된 문제들을 소개하였으며, 북한에서의 공동체 활동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다. 학생들은 남한에서의 문화가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개인생활에 대해서는 개인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북한에서는 공동체 활동이 많아 서로에 대한 관여가 크다는 점을 학습하였다. 학생들은 북한 주민들과의 이웃이 되었을 때 인식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하여 실천적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활동을 통하여 서로를 배려하고 차이를 인정하기를 연습하는 모습을 보였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생활에 있어 북한의 다양한 측면을 제시하는 계기는 되었으나 단순히 지식전달 수준을 넘어 학생들이 북한, 북한 주민에 대해 개방적 태도를 지니게 하고 수용적 태도로 북한과 남한의 차이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성이 있다. 수업 중에 제시된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남한의 방식만을 옳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이 남북한 사회를 모두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유의하여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참여도와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영상물을 수업자료로 활용하는 경우, 이를 시청한 이후에는 교사가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주거나, 수

업 내용과 관련하여 학생 스스로 더 탐구해볼 수 있도록 책이나 매체를 소개해 줌으로써 자극적이고 편향되어있는 자료를 구분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등의 지도가 필요하다. 프로그램의 내용에 있어서 남북한을 비교하는 내용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학생들이 타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교수자가 가치판단적 발언을 최대한 자제하고, 학생들에게 차이점을 강조하기 보다는 공통점을 같이 언급하여 되짚어 주어야 하는 등 지도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존재한다. 또한 수업내용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교수자는 남북한의 현대사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확대 보급되기 위해서는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수자가 높은 다문화 역량을 갖추고 통일 및 북한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준비시키는 일이 선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 평가에서 본 프로그램은 통일대비가정생활문화 교육프로그램으로서의 목적을 잘 달성하였다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각 차시의 프로그램을 구성한 연구자가 달라 프로그램 구성의 관점, 원고의 난이도 측면에서 차시별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추후 교재개발 및 정규 교육과정으로의 편입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수업의 전개방식과 교수자료의 구성을 통일하고 용어의 난이도 수준을 조정하여 전체적인 일관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자신과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 적절한 소통방식과 행동방식을 선택하는 역량은 어느 한 순간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생동안 지속적으로 길러지는 생애적인 발달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Chu, 2014). 따라서 앞으로 체험학습이나 북한이탈 청소년과의 만남 등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으로 후속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청소년들의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단순한 정보전달을 넘어서 통일 후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추후에는 통일 후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된 교과과정의 개발을 통해 통일대비 교육의 내실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는 종종 한 국가 내에서도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으로 인해 난제에 봉착한다. 머지않은 미래에 다가올 통일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겪을 다양한 갈등으로 인한 현실적인 문제들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극복 가능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이해는 우리와 다른없는 일상적인 삶을 이해하는 가정생활문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작될 것이며 이는 다른 어떠한 접근 보다 통일교육에 있어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미래지향적 교육이다. 또한, 우리가 통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 통일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시행을 통해 초중등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성인 교육 프로그램, 평생교육적 차원으로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 주민의 삶에 대한 이해를 통해 통일에 대한 국민적 통합 인식의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Ahn, J-Y & Jin, H-K (2015). A study on the social advancement of the youth through the North Korean movies and TV dramas. *한국문화기술*, 19, 63-98.
- Ahn, M-S (2002). A study of the leisure life and sporting activities of the ordinary people in North Korea.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41(2), 119-131.
- An, S-H & Kim, Y-K (2017). A study on the North Koreans dietary life by analysis of the dietary life term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9(1), 1-13.
- Bae, H. D. (2009). *새로운 통일교육론*. Daegu: Kyungbook University Press.
- Cho, K-H (2001). A study on the apparel industry and the clothing culture of North Korea. *Fashion Business*, 5(4), 158-175.
- Choi, J-O (2016). *Analyzed articles of the media of South and North Korea in relation to North Korean cloth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Choi, M-K, Kim, M-J, & Kang, M-H (2015). Awareness survey on Korean traditional festival food of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in South Korea. *Journal of the East Asian Society of Dietary Life*, 25(4), 565-573.
- Choi, S-H (2017). A study on the North Korea housing supply through the analysis of media materials in 2000.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37(1), 419-420.
- Choy, H-S (2016). A study on the change of clothing culture of North Korea under the regime of Jong Un Ki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6(6), 122-134.
- Chu, B-W (2003). The validity of peace education approach to unification education. *통일문제연구*, 15(1), 102-125.
- Chu, B-W (2014). Developing intercultural competence in the unification education. *Journal of Ethics Education Studies*, 33, 353-373.
- Chung, M-K & Hwang, H-K (2007). A study on strategies for unification education in clothing & textiles area of practical arts of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20(4), 145-170.
- Chung, M-K & Kim, Y-J (2008). A study on strategies for unification education in dietary life and housing area of practical arts of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21(2), 157-177.
- Chung, M-K (2008). A study on strategies for unification education in family & consumer life area of practical arts of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21(1), 129-152.
- Chung, S-H, & Lim, J-H (2014). A comparison of the Korean family values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21(4), 97-127.
- Han, J-E (2017). Research on the method of improving residential culture for the social independence of North Korean defector: Focused on the solutions to resolve the social exclusivity questions of the local commun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Design Culture*, 23(1), 675-684.
- Han, S-H (2014). Analysis of 'Wild Flower Girl', a North Korean movie in Kim Jung Un era. *The Journal of the Humanities for Unification*, 59, 343-372.
- Hong, M (2004. 8). 토막집에서 고층아파트까지: 북한의 주거문화. *북한*, 174-183.
- Hwang, J-Y & Chang, N-S (2001). Dietary patterns and nutrient intake in North Koreans by utilizing literature search

- and survey. *Korean Journal of Community Nutrition*, 6(3), 371-379.
- Hyun, J & Ahn, J-H (2015). Study about change of North Korean sports policies. *Korean Journal of History of Physical Education, Sport and Dance*, 20(3), 145-161.
- Jang, Y-S (2003). ‘고난의 행군’ 이후의 북한가요. *실천문화*, 12, 353-367.
- Jeon, H-K (2005). The problems and new approaches of Korea unification education: Focusing on the secondary school.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13, 351-389.
- Jeon, Y-S (2012). A study on characteristic of North Korean non-propaganda songs depicting women's life. *The Journal of the Humanities for Unification*, 53, 171-199.
- Jeong, E-M (2009). A transition toward market economy and systemic adaptability in North Korea. *통일과 평화*, 1(1), 141-170.
- Jeong, H-T (2010). A study on transition process of unification education and its direction in school. *Unification Strategy*, 10(2), 37-92.
- Kang, G-S (2016). Moral education textbooks and unification education: A content analysis on moral education textbooks for middle school students in South Korea. *도덕윤리과교육*, 50, 29-54.
- Kim, D-N, Rhee, K-C, Lee, K-Y, Rhee, E-Y, Yi, S-H, Park, Y-S, & Choi, Y-S (1999). A study on the housing life situations of North Koreans and their housing behaviors based on the interview and empirical survey with defectors. *Journal of Korean Management Association*, 17(4), 221-238.
- Kim, M-H (2016). *A study on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clothing life: Actual condition of clothing in North and adaptation process in Sou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Kim, M-J & Jeong, H-S (2011). Study on dietary habits of North Korean refugees. *Journal of the East Asian Society of Dietary Life*, 21(1), 1-13.
- Kim, M-J (2013). Type and system of North Korean TV drama. *한국문화기술*, 16, 27-53.
- Kim, S & Lee, W-Y (2016). Collective minds formed through North Korea's documentary films during the arduous march period: Focusing on “Let us hold high the red banner!”.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6(5), 327-334.
- Kim, S-H (2012). Study on the consumption trend phenomenon in North Korea after 1990: Based on the experiences of North Korean defectors. *북한연구학회보*, 16(1), 191-216.
- Kim, S-S, Han, H-J, & Lee, H-R (2006).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tourism realities through a survey with north korean defectors. *Journal of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18(4), 381-397.
- Kim, S-W (2014). A study of private law on the privatization process of housing in North Korea after th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법과 정책*, 20(1), 137-155.
- Kim, Y-H (2011a). A study about dietary life policy of North Korea which appeared in the Chosun art movie: Main theme, story analysis of movie ‘Scenery of new year's day’. *통일문제연구*, 23(1), 271-310.
- Kim, Y-H (2011b). A study about dietary life policy of North Korea which appeared in the Chosun Women: After the marching of tribulation. *Journal of Koreanology*, 41, 295-333.
- Kook, J-H (2005). *A study on the ways for instruction of unification education in practical arts: Focusing on living cultur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Daegu, Korea.
- Kwon, J-H (2007). A study on the present state and assignments of school unification education: Focusing on ethics subjects of middle-high school. *Unification Strategy*, 7(2), 55-87.
- Kwon, S-D (2014). A Study on South Korean social integration policy for North Korean defectors. *Journal of Korean Political Science*, 23(1), 101-126.
- Lee, A-R (2011). 북한의 전통음식: ‘고난의 행군’과 길거리 음식. *北韓*, 470, 108-112.
- Lee, C-S, et al. (2016). *Middle school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1*. Seoul: Chunjae education.

- Lee, E-J, Pei, Y-Q, & Kim, E-M (2013). A survey of the adaptation and preference for South Korean food in North Korean refugees.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19(2), 93-110.
- Lee, H-I (2000). 북한 영화와 연구현황. *한국예술종합학교논문집*, 3, 65-89.
- Lee, H-N, Choi, J-O, Lee, Y-J, & Lee, Y-Y (2015). Comparis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terms, related to clothing and textiles. *International Journal of Costume and Fashion*, 15(2), 37-47.
- Lee, I-J (2015). Study about family and parenting of North Korea which appeared in the *Chosun Women*. *도덕과윤리교육*, 46, 83-105.
- Lee, J-C (2011). A study of Chosun Central TV programs in 2000s.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Affairs*, 23(2), 195-226.
- Lee, M-K (2004). 북한의 모성이데올로기: 『조선녀성』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Political and Diplomatic History*, 26(1), 389-419.
- Lee, M-S (2015). Study on the canonical North Korean song, 'Sahyangga' by Kim Il Sung. *음악과 문화*, 33, 155-183.
- Lee, S, Kim, C-W, Yang, M-S, Lee, S-K, & Kim, E-Y (2009).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통일연구원 협동연구총서*, 12, 2-196.
- Lee, S-J (2005). The way toward the education for unification in practical arts among unification-ages.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18(2), 143-156.
- Lee, S-K & Nam, S-Y (2012). Comparison of food and nutrient consumption status between displaced North Korean children in South Korea and South Korean children. *Korean Journal of Community Nutrition*, 17(4), 407-418.
- Lee, Y-J, Kim, K-M, Kim, M-J, Kim, Y-K, Song, J-E, Lee, Y-S, Lee, J-K, Lee, H-N, Lim, J-H, Chung, S-H, & Han, Y-S (2016).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family life education program for North Korean defector adolescents in South Korea.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8(1), 41-57.
- Lee, Y-J, Kim, Y-K, Song, J-E, An, S-H, Lee, Y-S, Lee, Y-Y, Lee, H-N, Lim, J-H, Chung, S-H, Jung, M-Y, & Han, Y-S (2017).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family life culture education program in preparation for the reunification of Korea aimed at pre-service home economics teacher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9(1), 125-143.
- Lee, Y-R & Choi, Y-J (2012). Competitiveness of the clothing and textile industry in North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6(8), 885-899.
- Lim, J-H & Chung, S-H (2015). The value of children in South and North Korea.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3(6), 77-95.
- Lim, J-H, Chung, S-H, & Song, J-E (2016). Comparis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terminologies in child and family domains of family life educatio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8(2), 61-78.
- Ministry of Unification (2004). 통일교육기본지침서. Retrieved from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592&mode=view&page=&cid=19631>
- Ministry of Unification (2014). 통일교육: 통일, 꼭 해야 하나요? Retrieved from <http://blog.naver.com/jrunikorea/10187354020>
- Ministry of Unification (2016). 학교통일교육실태조사. Retrieved from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557&mode=view&cid=47205>
- Na, Y-I, Hyun, J, Ahn, J-H, Shin, Y-J, Jin, H-J, & Sung, J-H (2013). Study of changes of physical activity and leisure activities in North Korea: Focus on Dancheon province. *The Korean Journal of History for Physical Education, Sport and Dance*, 18(2), 111-126.
- Oh, G-S (2012). A desirable unification education in the age of new media.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35, 69-102.
- Park, B-Y (2010). Self-directed learning in Korean reunification education: Based on the "experience" of students. *Theory and Practice of Education*, 15(2), 69-92.
- Park, C-S (2017). The status and challenges of unification education in Republic of Korea after 2016. *도덕윤리교육*, 54, 265-289.

- Park, J-Y, Kim, Y-P & Yun, D-K (2003). The study of comparison with industrial standard of South-North Korea in clothing. *Journal of the Society of Korea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ng*, 26(4), 1-5.
- Rhee, K-C & Rha, J-Y (2007). North Korean defectors as consumers: Their recollection of consumption experience in North Korea and consumer adaption experience in South Korea. *Consumer Policy and Education Review*, 3(2), 101-122.
- Rhee, K-C, Lee, K-Y, Rhee, E-Y, Yi, S-H, Kim, D-N, Park, Y-S, Choi, Y-S, Min, H-S, & Park, M-Y (2000). Analysis of consumption patterns of North Koreans and their differences from South Koreans' based on the study of North Korean defectors. *Journal of Korean Management Association*, 18(4), 57-74.
- Shin, W-D (2016). Utilizing the results of everyday life approach on the unification education of moral education curriculum. *도덕윤리과교육*, 52, 231-253.
- Sohn, S-H, Jung, J-H, Kim, J-E, & Pak, J-W (2014). The consumption life adaptation of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Journal of Consumer Policy Studies*, 45(3), 329-357.
- Song, M-H (2017). A study on school's reunification education for social integration after reunification: Focused on reunification education model of school.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12), 515-543.
- Song, M-H, Kim, D-J, Kim, S-H, & Lee, Y-S (2016). Review of studies on Korea's unification curriculum o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levels: Current Trends and Future Studies. *Korean Education Inquiry*, 34(3), 1-20.
- Suh, W-S (2000). Evaluation on housings and its policies of North Korea. *Korean Architects*, 4, 76-81.
- Syn, H-Y & Geum, K-S (2001). 북한 복식에 관한 연구. *The Eastern Art*, 3, 159-193.
- Unification Media Group (2015). 북한 변화의 중심, 시장. Retrieved from [http://www.i-ubs.org/korean/bbs/board\\_view.php?bbs\\_code=bbsIdx7&num=238&page=1&keycode=subject&keyword=%EC%8B%9C%EC%9E%A5](http://www.i-ubs.org/korean/bbs/board_view.php?bbs_code=bbsIdx7&num=238&page=1&keycode=subject&keyword=%EC%8B%9C%EC%9E%A5)
- Yang, M-S (2006). A study on the level of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Review of North Korean Studies*, 9(3), 7-43.
- Yoo, S-L & Im, S (2006). Comparative study on costume culture South/North Korea after 1945 year. *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9(2), 173-181.
- Yun, H-S (2016). Analysing youth education regarding unification through junior high school social studies textbook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3(1), 335-359.

#### <국문요약>

본 연구는 통일 한국에 대비하여 통일 후 대한민국의 주축으로 성장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가정생활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행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과 가정생활문화에 해당하는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이를 근거로 교육 내용을 선정하였다. 교육은 2015년 12월 사이에 서울시내 남부공학 중학교 1학년 두 개 학급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교육 내용은 가정교과의 세부 내용학을 중심으로 실생활과 밀접한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가족생활 및 대인관계, 소비생활 및 여가 등의 주제로 12차시 분량으로 준비되었다. 사전-사후 평가에서 소비생활, 여가생활, 아동·가족생활,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또한 학생들의 구술 응답에서도 프로그램의 내용이 실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 하였으며 학기 중에도 이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이 개설될 것을 희망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남한의 청소년들에게 북한의 가정생활문화의 이해를 도움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통일한국을 대비 하도록 하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논문접수일자: 2017년 08월 08일, 논문심사일자: 2017년 08월 11일, 게재확정일자: 2017년 09월 25일